

광산구청 인터넷 방송국 'GS iTV' 광주 첫 개국



'GS iTV' 인터넷방송국 팀이 광주시 지정기념물인 광산구 박호동 '양씨삼강문' 앞에서 문화유산해설가의 해설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

더 가까워진 지자체·주민
자치 활성화 함께 만든다

'주민 기자' 제작 참여 투명성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도 인터넷 시대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국이 바로 그것이다. 광산구청은 이달 초 광주시내 구청중에서는 처음으로 인터넷 방송국 'GS iTV'를 개국했다. 인터넷을 통한 지자체와 주민들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확보한 것이다. 당연히 일방적인 지자체 홍보가 아니라 주민들이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코너인 '광산문화기행'이란 기획 특집도 방송중이다. 또 주민들이 직접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해 각종 민원이나 제도 개선 사항, 미담사실을 전달하는 코너도 마련했다. 주민이 방송국의 주인인 셈이다. 광산구는 인터넷방송국 개국에 맞춰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명기구, 전동스크린, 아나운서 데스크 등을 설치한 스튜디오도 만들었다. 그러나 기본설비 외 다른 돈이 들지는 않았다. 아나운서와 편집, 촬영 등 인원 7명을 인터넷 방송국에 배치했으나 모두 기존 구청 직원들이다. 또 선발된 주민기자 50명도 직접 제작에 참여해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방송국 아나운서로는 구청 홍보실 직원인 김수이(27)씨가 선발됐다.

김씨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만들었는데 다양한 콘텐츠와 아이디어, 주민 기자의 열정으로 좋은 소식만을 전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갑길 광산구청장은 "인터넷 방송국은 주민들과 지자체가 서로 쌍방향 소통을 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충실히 갖춰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도 지난해 1월 인터넷 방송을 개관해 도정뉴스, 기획영상, 나도 VJ 코너 등을 만들어 운영 중이며, 서울 송파구·광진구·동대문구 등도 스튜디오, 녹음실, 방송국용 카메라 등 시설을 설치해 3년 전부터 운영 중이다. /광산=기원대기자 wtkee@/광필상기자 kps@kwangju.co.kr

주말·휴일 '봄 햇살 속으로'

광주·전남 맑고 따뜻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은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등 날씨가 좋을 날씨가 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5일 광주·전남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조금 낀 맑은 날씨가 되겠으나 오전만 때 광주·순천 등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도 있겠다"고 14일 밝혔다.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로 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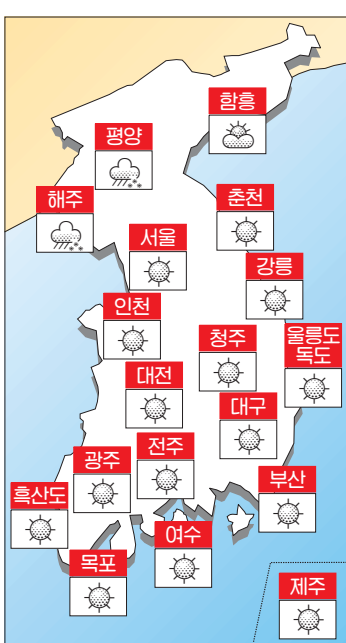
쌀하지만, 낮에는 평년보다 6~7도 가량 높은 15~19도까지 올라가 따뜻할 것으로 보인다.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이유는 따뜻한 남서풍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일사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휴일인 16일도 최고 19도까지 올라가는 등 전날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야외로 나가 볼까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4~19℃
목포	맑음	5~17℃
여수	맑음	7~16℃
완도	맑음	5~17℃
구례	맑음	6~20℃
해남	맑음	2~18℃
장흥	맑음	1~18℃
고흥	맑음	3~19℃
순천	맑음	1~20℃
영광	맑음	3~16℃
영암	맑음	2~19℃
진도	맑음	3~18℃
남원	맑음	1~19℃
홍산도	맑음	4~13℃

3월 15일 (음 2월 8일) <전국날씨>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0.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0.5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목포 밀물 < 08:17 썰물 < 00:18
목포 밀물 < 20:11 썰물 < 13:58
여수 밀물 < 03:14 썰물 < 10:07
여수 밀물 < 15:41 썰물 < 22:06
▲해돋이 06:43 ▲해질림 18:4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16(일)	17(월)	18(화)	19(수)	20(목)	21(금)
날씨						
최저/최고	5/18	4/18	5/20	4/19	3/19	3/18

서민 울린 아파트 임대보증금 사기단
이중계약 통해 24억 가로채

61명 피해...순천경찰, 일당 13명 적발

서민들을 상대로 아파트 임대보증금 사기 행각을 벌인 전문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경찰은 14일 임대아파트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과 이중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가로챈 조모(여·37)씨 등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조씨의 남편 김모(39)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부부 등은 지난해 9월 27일 임대차 계약을 끝내지 않은 순천시 조례동 모 아파트를 서모(40)씨에게 임대해 주겠다고 속여 보증금 3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채

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61명으로부터 2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고 계약기간도 끝나지 않은 아파트를 피해자들에게 소개한 뒤 이를 임대할 것처럼 속였으며, 계약기간이 끝나 이사를 원하는 기존세입자들에게도 "집을 나가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 등은 친인척들의 명의를 빌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아 아파트 소유권을 확

보했고, 피해자들과의 이중계약을 통해 확보한 보증금 등을 이용해 아파트를 추가로 사들였으며 이를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불법대출과 이중계약을 통해 본인들과 친인척의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는 순천 지역에만 200채가 넘는 것으로 파악돼 추가 피해자들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대출 과정에서 법무사·금융기관 관계자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차량 내비게이션 상승 절도 20대 검거

도시 주택가 골목길에 세워진 차량에서 물건을 상승적으로 훔친 전문 차량 털이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14일 차량 유리창을 깨 뒤 내비게이션 등을 훔친 김모(25·서구 쌍촌동)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밤 11시에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주차장에 세워진 신모(31)씨의 87억67XX호 님아스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파손한 뒤 시가 50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75회에 걸쳐 모두 2천475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차량의 유리창을 소리내지 않게 깨뜨린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통해 훔친 내비게이션을 내다 팔았으며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노숙자 명의를 대포 통장을 개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쟁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근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고 내비게이션을 보내지 않는 등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해당 사이트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김씨를 붙잡았다. /이종형 기자 jrwj@kwangju.co.kr

반도체 공장 불
직원 2명 화상

14일 오후 2시55분께 광주시 북구 대촌동 모 반도체 공장의 폐수처리장에서 불이 나 공장 직원 등에 의해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이모(38)씨 등 2명이 가벼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공장 가동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수처리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비어있던 폐유 탱크에 불티가 튀었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기를 증거에 불이 붙었을 수 있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승려문 방화범 첫 공판
범행 사실 인정

승려문에 불을 저지른 혐의(문화재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채모씨는 14일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채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승려문에 불을 지른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내가 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 채씨는 그러나 2006년 창경궁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위해서는 인정해야 한다는 자식들의 권유에 따라 허위 자백한 것으로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4억원짜리 땅이 9천600만원 밖에 보상금 공탁이 되지 않아 청와대 등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대통령도 아무 말이 없었고 국민고충위에서 '땀대도 하라'는 말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용역 대금 안 준다" 외제차 빼앗아

○광주북부경찰은 14일 폐기물 처리 용역대금을 주지 않는다며 용역을 발주한 회사의 중역을 폭행한 뒤 외제차를 빼앗아 달아난 최모(56)씨 등 2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16일 오전 8시40분께 광주시 북구 동림동 빛고을로에서 양모(65)씨의 폴크스바겐 승용차를 가로막고 양씨의 얼굴부위를 폭행한 뒤 그 차량을 빼앗아 달아났다는 것. ○이들은 양씨가 중역으로 근무하던 M건설회사와 1년 전 계약을 맺고 폐기물 처리를 해줬으나 M건설이 부도나면서 용역대금 550만원을 받지 못하자 외제차를 대신 빼앗았다고. ○최씨는 경찰에서 "일 보러 가던 중 우연히 양씨 차를 발견하고 범행을 결심하게 됐다"고 진술.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영상복합문화관 기공 광주 영상문화산업의 핵심시설이 될 '영상복합문화관' 기공식이 14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옛 광주세무서 부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박광대 광주시장과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등 내빈들이 공사시작을 알리는 발포버튼을 누르고 있다. /위직리기자 jrwi@kwangju.co.kr

"미국 유학 자녀 납치됐다"
잇단 전화 사기 '주의'

미국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모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Voice Phishing·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사기범들은 미국과 한국의 시차를 이용해 사실확인이 어려운 미국 새벽 시간대에 전화를 걸어 '자녀가 납치됐다'고 협박, 목숨을 요구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들 뉴욕으로 유학 보낸 김모씨는 지난 12일 '아들이 납치됐다'며 거액의 목숨을 요구하는 사기전화에 속아 급전직 피해를 입었다. 경성도 말투를 사용한 이 사기범은 한국시간으로 오후 4시에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의 비명이라며 '살려달라'는 목소리까지 들려주면서 살해협박을 가했고 당황한 김씨는 범인에게 목숨을 보냈다. /연합뉴스

김씨는 송금 직전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확인전화를 걸었지만 뉴욕은 새벽 시간대로 잠들어 있던 아들과 연결이 되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추가로 목숨을 요구하는 사기범의 전화를 받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다시 연락이 오질 않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앞서 보스턴에서 유학중인 학생의 부모에게도 지난달 김씨와 유사한 사기전화를 받았으며, 지난해 8월에도 뉴욕에서 같은 유형의 사기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기사건과 관련된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의 시차를 교묘하게 이용한 사기사건이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다면서 협박전화가 오면 당황하지 말고 관계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광주진틀맨비뇨기과
www.vmscl.com
박기철 대표
비뇨기과 전문의
062-233-5119